

비범한 정치실력과 대용단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철을 공헌을 하고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행성에 뜨겁게 굽어지고 있다.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인디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그의 영상사건문헌을 모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파격적인 모습으로 진행된 신년사》 등의 표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는 2018년부터 해마다 신년사를 발표하시었지만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양복차림으로 입장하시는 장면부터 공개하였다. 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방에서 쓰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하시는 모습은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웠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는 조선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내외의 반향이 날로 커가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중국방문은 또다시 온 행성을 격

《세계정치계의 거성》, 《뛰어난 외교의 거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르는

국제사회계의 매혹과 찬탄

중국방문은 그의 평화애호의 지가 얼마나 굳건한가 하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준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최고령도자시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외교의 거장이심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한편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기네 김일성-김정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와 단체들은 련이어 축하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담화, 성명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올해가 조중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인 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내번제로 이루어진 그의 중국방문은 세계외교사에 일찌기 잊어보지 못할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조중친선의 불분성, 불멸성이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파격의 연속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초에도 전세계를 《조선총격》, 《조선관》으로 들끓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보적인류는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정치가, 걸출한 령도자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는 그이께서 지난해에 단행하신 북남수뇌상봉들과 조미수뇌상봉, 중국방문들을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시보》, 일본의 교도통신, 공공의 문제메통신, 인터넷통신 잘못가 《2018년 국제10대뉴스》, 《2018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인류가 《김정은총격》, 《김정은열풍》으로 날과 달을 보낸 지난해의 북남 및 조미수뇌상봉을 별가리아신문 《프루드》, 《2018년 주요사건들》로 칭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 대통령과 약속하시는 영상사건문헌을 《2018년 10대주요사건들》에 모시었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본격적인 외교활동으로 세계정치계를 뒤흔들어 놓으신

이것이 오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만민의 정중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실황중계로 비울수 있었던 그는 너무나도 멋진 지도자이시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정치계의 거성》 이시다.

그이께서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시고 비상한 결단과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소식에 접한 사람들은 70여년간이나 치열한 대결로 지속되어온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신 김정은위원장께 매혹되어 격동된 심정들을 터치고있다.

수많은 나라의 정계인사와 언론들이 김정은위원장을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 《파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탁출한 외교력을 과시하시신분》, 《자신감을 안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숙한 정치가》, 《전략적으로 능숙하신 지도자》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뇌상봉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어 특대사변들을 연속 안아오신 김정은각하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렐취취》는 세계정치무대의 인기의 최고관심사로 되고있다.

이런의 일사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으시는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오늘날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진 령도자》, 《2018년 세계정치계에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

그이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단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이며 포괄적이라는것이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높은 국가정치가》,

본시기자

조국소식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룡구,

배구, 바드민턴, 태권도, 바줄당기기, 체육육회오락 등의 경기가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청춘거리 룡구경기관, 태권도전당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4개 조로 나누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4일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다.

광명성절경축 구간다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캄팔라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구간다준비위원회 위원장 마암발라 로센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7돐에 즈음하여 그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단마르크의 퀴베하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안테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모렌 탬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300여가지의 제품 2월2일제품으로 등록

공화국의 여러 부분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생산공정들에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질제고운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에 60개 단위에서 생산하고있는 300여가지의 제품들이 2월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견제품들을 질높게 만들어냈다.

경련에국사이다공장, 평양곡산공장, 송도린종합식료공장,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등 여러 단위의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들이 질은 물론 상표도안과 포장도 훌륭한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원산구두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양화장품공장, 평양양말공장, 안주절연물공장, 안주뽕프공장에서 생산하는 데르론인견양복천, 남자겨울구두, 물크림, 세수비누, 여자양말, 패슬수지와

니스, 흠발음원실뽕도 등은 사 용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0(1981)년 2월 2일 전국품질감독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공화국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하고있다.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단마르크의 퀴베하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안테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모렌 탬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평성김치공장 새로 건설

평성김치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평성시의 봉화동지구에서 건설된 공장에는 김치생산에 필요한 조건

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다. 평성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

품인 김치를 생산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해파리양식 기술 확립

수산청 수산연구원에서 인공배양에 의한 새해파리생산기술을 확립하여 해파리를 공업적 방법으로 대량양식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집단은 얼지해파리로부터 인공적으로 알을 받아 깨우는 기술, 실내고밀도육육기술 등을 연구완성하였다.

유생단계와 새끼해파리단계에 따르는 먹이처방을 과학적으로 작성해놓는것을 비롯하여 야외못과 바다서식장에 새끼해파리를 옮겨 키우는 공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새로운 해파리양식기술을 도입한 단위들에서는 이전보

다 투자를 적게 들이면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대폭 늘려왔다.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해파리리튬은 공화국 인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시기자



시물이 쏟아진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파키스탄의 각계인사와 군중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브. 알라프가 선출되었다.

전국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 계속진행회 위원장 에두아르드 콘나프가 선출되었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지구화사업수행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지구화사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 정치인물로, 창조와 건설의 영예,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모시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로동자

위원회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소관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한다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에티오피아준비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해외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지지

남승우 총련중앙삼일위원회 부의장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련합회의가 호소문대로 력사적인 관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리행하는데 민족의 살길이 있으며 우리 제일동포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는 구호를 높이고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다.

총련은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을 강화하고 단행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도전과 방해도 반대배격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총련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전면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

이며 사상과 정견, 단체, 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동포들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함께시켜 나갈것이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길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우리 제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 본땅에 끌려와 치욕스러운 망국의 슬픔만을 당해온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제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것은 한시도 미루수 없는 최

대의 숙원이다.

우리는 반동일제력의 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전체 조선민족의 꿈과 희망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 앞장서나갈것이다.

정체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령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재중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총련합회 김림지구협회는 담화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는 벅찬 시기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화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전체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재중동포들이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북남선언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담화들은 강조하였다.

림명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지구협회화산 지부장과 윤영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지부 사무장도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민족적화해와 평화의 길에 있어는 평마루를 향한 거족적인군기를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호소문을 흠모하는것으로 격정으로 접하고 전진인 지지를 보내고 밝혔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면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 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적극 지지찬동하고 받들어나가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사업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것이라는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담화들은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선언사에서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그러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통일을 일일천주로 바라는 겨레의 숙원을 하루 빨리 풀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민족애가 숨어 넘치고있다.

돌아보면 일제를 쳐 물리친 삼천리강토에 해방만 세소리까지 가셔가지고도 전에 외세는 반만년 오랜 세월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살았을 우리 민족에게 분열이라는 가슴아픈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때부터 70여년 동안 북과 남은 한과 풀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면서도 마음대로 오가지 못했고 반목과 불신은 오히려 깊어만 갔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어느 하루도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변영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속원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분렬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막을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과 남은 서로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개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의 대법한 결단과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에 의해 북과 남은 서로 굳게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위한 사업에서 공인을 올려주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새해정초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안고 온 겨레에게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펼쳐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갈 때 대하여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존중적인 지지성원을 보내면서 《2018년 북남관계의 극적

변화들에 이어 2019년은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변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하면서 통일열기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공화국뿐만 아니라 남조선에서도, 조선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겨레 누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계속 이어져 자주통일의 새 아침이 하루빨리 밝아오기를 고대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날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지금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를 서로 인정하고 융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입장에서 풀어나갈 때 겨레의 숙원은 실현될수 있다.

심장에 조선민족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나든지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통일론의 마당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리어금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 서고있는 지금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로,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이 력사적흐름에 맞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상에 섰은 력사적인 선언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 을 더욱 가속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변영의 새로

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북남선언들은 리행과정을 통해서도 그 정당성과 생활 력이 뚜렷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이처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

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는 과정 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무대들

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단합된 힘을 내외에 펼칠것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또한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것, 바로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길 이 있다.

리어금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는 그 어떤 장애와 난관에도 굴함없이 민족화해와 평화변영의 리정요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

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선언에 명시된 문제들은 그 어느것이 나 북남관계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목표들이다.

이처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 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

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는 과정 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무대들

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단합된 힘을 내외에 펼칠것을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또한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는 외세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간섭과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려는 우리 민족의 결의를 가로막을수 없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갈것을 위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련대모임 개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리대모임 추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가슴벅찬 미래를 단합된 힘으로 함께 열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임에서는 지금이 다시는 적대와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모든 민족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 북남수뇌분들의 합의를 조선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리행하고 발전시켜 나갈것과 북남간 협력을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것,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마련하고 합의 하기 위한 전사적외교노력을 시작할것 등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화해와 협력의 상징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선언사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 동료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신 이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겨레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 제안은 발표되자마자 남녘의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지지 반응을 받았다. 이 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선언사는 우리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북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재개는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어정쩡한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새해에 공화국이 내놓은 개성공업지구재개제안을 보더라도 뜨거운 민족애, 동포애의 산물이고 오늘날의 평화변영시대를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려는 애국애족의 의지가 낳은 획기적인 제안이다.

개성공업지구가 어떻게 되어 탄생하였고 또 순간의 멈춤도 없이 10여년동안이나 민족공동번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온 겨레가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이다. 북과 남의 지혜와 힘이 합쳐져 이루어지고 활발히 운영되어온 개성공업지구에서

는 단순히 인기를 끄는 제품만 생산되어 나온것이 아니라 되었다. 그보다도 더 큰 수확은 화해와 단합의 마음이 더욱 커진것이라 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은 사상과 체도를 초월하여 우리 힘을 합치면 더 큰것을 이루어내고 가속을 누히 앞날을 열어나갈것을 누구나 가슴부터 감개하였다.

북남이 군사적으로 침체에 빠진 채지나오던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완화된 것처럼 위상이 아니라 평화의 기운이 중태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겨레가 입은 혜택을 돈으로도 계산할수 없는 큰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전문가도 《북이 공업지구건설을 위해 많은 무력을 후방으로 옮겼으며 협력적이며 공업지구가 군사적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평화의 상징이자 보루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남조선의 일각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그 누구에 대한 《퍼주기》인듯이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개성공업지구 운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기업가들과 인사들이다.

2004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 2월 폐쇄되기 전까지 124개의 남조선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벌였다. 여기서 2015년까지 남조선 입주기업들은 모두 32억 3303만US\$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또한 입주기업들과 련관된 협력업체들이 남조선에 5900여개나 생겨났으며 2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북에

주는 임금인 1이라면 기업들이 얻은 경제효과는 10이다.》, 《남조선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명품상품들은 거의 모두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것으로서 리득을 많이 보지만 당국의 전전중단조치로 그동안 번것보다 훨씬 큰 리득을 보게 되었다.》는 남조선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서도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으로 누가 훨씬 더 많은 리득을 보았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처럼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숭고한 민족애, 통일지의의 산물이며 오랜 기간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안아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협력의 상징으로 되었든 소중한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이견 부족《정권》들의 동족대결정책때문이다.

지난해에 북과 남은 새차레의 북남수뇌상봉과 선언들을 통해 불신과 대결의 과거를 끝장내고 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의 미래로 손잡고 나아갈 때에 대하여 확고하였다. 화해와 단합, 협력과 평화대체의 흐름이 된 오늘날 민족의 의사에 어긋나게 중단된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금강산관광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는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그 재개에 대한 태도는 북남선언리행의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온 겨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더 큰 성과와 기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있다.

신기복

북남탁구단일팀의 여자인공을 만나

—4.25 체육단 여자탁구선수 공훈체육인 차효심과의 대담—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얼마전 우리는 4.25체육단의 여자탁구선수 공훈체육인 차효심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난해 남조선의 대전에 진행된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선수이다.

기자: 지난해에 북과 남은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 단일팀을 무어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세계에 떨치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의 탁구단일팀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했던 소감을 들과싶다.

차효심: 사실 처음으로 남녘땅을 밟은 나에게 차창밖의 풍경들은 몹시 낯이 설었다. 그러나 남녘동포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는것을 보면서 혈액의 뜨거운 정을 느꼈다. 남조선탁구협회에서 마련한 연회를 참가하였을 때 장우진선수가 찾아와 《많은 부락드립니다.》하고 인사를 했다. 그때 나는 그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 경기에 참가하였던 남녘의 장우진선수에 대해 말해주세요.

차효심: 그는 남조선에서 전도가 기대되는 선수로 알려져있다. 나보다 한살아래인 그는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그와 복식조를 무어 진행한 첫 경기상대는 몽골팀이었는데 기권으로 다음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훈련을 많이 해보지 못하고 경기참가 전에 30분정도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쳐 경기할수 있었다. 우진선수가 상대팀의 남조선

수의 기술에 대하여 알려주고 나는 상대팀여자선수에게 대하여 말해주면서 매 경기를 치르었다. 준결승경기에서 중국홍콩팀을 누르고 준결승경기에서 중국대륙에서 나에게 자기 의사를 전하는 각오를 가지었다.

기자: 결승경에서 어떻게 우승의 영예를 지니셨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으면 한다.

차효심: 결승경기에서 우리는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 응원열기에 우승으로 화답하고싶었다. 그래서인지 나 자신이 우진선수보다 결승경기 전과정에 말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된다. 우진선수가 경기전술적 측면에서 나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였다. 나에게는 경기심리 조절을 위한 측면에서 그에 나의 의사를 전하였다. 서로의 기술과 힘을 합쳐 민족의 영예를 꼭 떨치려

는 하나의 지향이 우리사이를 더욱 가깝게 했다. 북남의 온 겨레가 우리들의 경기를 지켜보고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탁구공 한알한알을 책임적으로 넘기었고 결국 우승의 단상에 오를수 있었다.

기자: 경기과정에 남녘동포들의 응원열기도 대단했다고 알고있는데...

차효심: 그렇다. 남녘의 관중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경기마다 열띤 응원으로 상대팀에는 위압감을, 우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러했지만 특히 결승경기를 할 때는 4000여명의 관중석이 관중으로 팍차고도 자리가 모자라 북도와 출입구에 서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우리도 헤아릴수 없었다. 우리가 득점할 때마다 관중들은 폭동같은 박수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강하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응원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기마감후 전에서는 온 관중이 우리의 승리를 고무하는 노래를 합창하였다. 남조선



인터네트와 언론들은 이날의 경기를 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은 통일》을 이뤄낸 순간이었다.》, 《하나된 남북은 정말 강했다.》, 《탁구단일팀 《찰떡남매》의 우승》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나와 장우진선수는 우리들의 경기성과를 위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준 남녘의 동료관중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 동료형제들의 뜨거운 응원에 떠날때 우리는 기어 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할수 있었다.

참으로 남조선의 대전에서 진행된 국제공개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한것은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힘을 합쳐 이룩한 공동의 승리와 민족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탁구단일팀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에 북남이 힘을 합치면 정말 강해지고 못해낼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더욱 생겼다.

기자: 남녘의 장우진선수에게 새해에 하고싶은 말은?

차효심: 이제 머지않아 마자르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다. 나는 우진선수가 잠시 말고 건강하여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국제탁구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기자: 오늘 좋은 말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국제경기무대에 더 많이 출전의 승리를 고무하는 노래를 합창하였다. 남조선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우수한 차효심, 장우진선수들



근로자들을 위한 참다운 세상

이 행성에 유일무이하게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이라는 말 자체도, 일자리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능력, 소질에 따라 안전 조건을 보장하며 마중과 창조를 보장하고 있다. 오늘 취업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노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전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국가의 법적 의무에 따라 해마다 고급중학교졸업생들과 대학졸업생들 개 개인의 희망과 능력, 전공을 고려하고 합당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일일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가 새로 입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건기관의 확인보증에 그의 전공부문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신체조건에 맞

은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노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차이가 있게 정하고 있다. 7시간, 6시간 등 짧은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노동시간은 8시간로동제와 같이 취급되며 생활비의 축감은 동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되고 있는 실업은 사전의 울림말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조성을 내어 일하고 있다. 보람찬 일터에서 참다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회례에 넘쳐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스위스의 한 정치인은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업자와 거지, 방랑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노동자합숙

자력갱생의 동음을 높이 울려간다 * 평양곡산공장을 찾아서 *

평양곡산공장은 자력갱생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얼마전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짐승먹이를 생산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어 우리는 옥당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해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장업무에 강령을 부여하여 여러가지 당분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완벽하게 확립해놓음으로써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옥당직장의 공장공정을 돌아보았다. 외부와 격폐되어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된다. 가빈기들이 호르몬을 타고 출려가 생산된 옥당을 채우고 상표를 붙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불수록 호뿐했다. 혹겨운 일터로 전변된 옥당직장에서 로력을 절약하고 생산을 늘릴 뿐 아니라 제품의 위생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는 현대화가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었다면 사탕직장에서는 자기 힘이 제일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준모직장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장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만든 설비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고, 이것이 바로 미담설비라고요, 온 나라에 자랑하려고 거듭 이리시었다. 그때 우리는 번듯한 남의 기계를 사다가 하는 현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만들어낸 기계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식의 현대화라는 참 의미를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과거직장에 새로 꾸러진 낱알편취기생산공정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인 낱알편취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러진 데 대한 과업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이 생산과 관련한 경험은 부족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공장에서는 낱알분쇄기와 낱알정선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고 원로치



본사기자 김 철



김장일

《통일신문》가 만난 사람들

역센 푸른 잎에 애국의 마음 없는 소나무화가

지난 일요일 모란봉출신의 정서는 참으로 이채로웠다. 겨울철이라고 하지만 푸근한 날씨가 며칠째 지속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우거진 모란봉에 올랐다. 모란봉의 산길을 따라 걸던 기자는 소나무를 그리고 있는 한 젊은 화가에게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그의 그림수첩에 심취되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신하고 기발한 구도, 선명하면서도 친근한 색채, 힘 있고 활달한 붓대어새로 그려가는 소나무그림을 바라보며 둘러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화가는 《조선의 기상이 차넘치는 소나무를 훌륭히 창작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소나무화가로 불려오는 리경남선생에 비해

면 아직 자기는 멀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겸손성에서만이 아닌 진정이 담긴 그의 말에 화에는 자연히 소나무화가에 대한 것으로 번져왔다. 소나무화가! 소나무를 얼마나 잘 그리면 소나무화가로 불리우랴. 그의 말에 의하면 리경남 화가는 나이 여든을 가까이 하고있는데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소나무그림을 창작하여 내놓았다고 한다. 소나무 화가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동반 기자는 그를 찾아 떠났다.

흥미진진한 《소나무강의》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의 인민예술가 리경남(79살). 그는 단봉질로 소나무를 훌륭히 그려내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의 창작실에 들어서니 마침 소나무그림창작중이었다. 창작세계에 빠지면 침식마져 있는다는 리경남화가라고 한다. 80나이를 가까이 하고 있지만 청춘의 활력에 넘쳐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 그를 보느라니 비견이 무엇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 젊어보이는 기자의 말에 리경남화가가는 늘상 소나무속에서 살기때문이라며 웃으며 말하였다. 그는 《인간의 행성을 두고 말할 때 서양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소나무에서 나서 소나무로 돌아간다.) 는 말이 전해져오고 있다.》고 하면서 구수하게 이야기를 퍼나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왔

는데 중세동방미술의 대결작인 고려어머뮌벽화에도 소나무가 형성되어있었다는 것이다. 평양시 려포구역에 위치한 돌칸휴무대인 풍산리1호휴무대안반벽에 강의 고구 불에 굴뚝처럼 흐르는 고구려사람들의 당대대 기상을 담아 휘몰아치는 광풍속에서 살아 움직이는듯 한 소나무가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후기신라의 이름난 화가 솔거는 벽에 소나무를 어찌나 잘 그렸던지 날아가



리경남화가가 창작한 조선화 《사시절 푸르름 번치 않는 소나무》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그린 화가

15세기 이상화의 《달밤에 소나무를 거닐며》, 17세기말~18세기 정선의 《사직단의 소나무》, 18세기 신윤복의 《소나무와 매》, 19세기 허련의 산수화 《산림악이》들에도 모두 소나무가 형성되어있다. 가는 《소나무는 조선화로 그려도 멋있고 유화로 그려도 멋있는 이상적인 묘사대상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소나무를 즐겨 그리곤 한다.》며 소나무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잎은 소담해야 하며 소나무의 정수리를 고평하게 하여 뻗어 세우지 말아야 한다. 화려하게 그리는데 중점을 두는 머드나무와 달리 소나무그림에서는 소나무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뿌리그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

나무줄기를 잘 그리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그림을 그릴 때 붓질을 진성진성하는 것과 함께 솔쥘 처리하거나 붓놀림을 시원하고 명랑하게 하여 소나무를 분명하게 그려대 한 것 등 들을수록 소나무그림에 정통한 화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46년간의 화가생활기간에 그가 창작한 소나무는 수천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그의 개인화첩도 보았는데 역시 소나무그림이 태반이었다. 리경남화가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은 독특한 구도와 힘 있고 활동적이며 독특한 기법으로 하여 미술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어떤 곡진한 사연이라도 있어 한생 소나무를 그린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에 그는 추억깊은 어조로 이야기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

가 창작한 조선화 《소나무》만 놓고보아도 천년바위에 어깨를 부러박은 소나무의 우뚝부들한 줄기와 길게 드리워진 가지들, 무성한 솔잎 등 세월의 비바람을 꽃같이 이겨내며 서있는 소나무의 여섯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물결기법의 특질을 살려 한두번의 붓질로 소나무의 형태학적특징과 색깔, 질감, 립체감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보며 볼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그의 소나무그림들중에서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된 것이 적지 않다. 중국, 러시아, 벨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열린 전람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경남화가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이 많이 내놓은 자기 소나무화가라고 부르는 데 조선의 화가라면 누구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즐겨 그리고있다고, 모두가 소나무화가라고 덧붙였다. 조선의 자랑, 국가의 상징인 소나무를 훌륭하게 그리는데는 그만인 아닌 이 나라 화가 모두의 꿈이고 희망인 것이다. 리경남화가가 말한다. 《강대한 나라가 있어 인민의 존엄이 멸치되고 국수인 소나무도 빛나는 것이다. 소나무의 강인한 기상으로 나라의 기상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이다. 내 나라의 불멸의 기상, 승리의 기상을 앙고 여생을 소나무그림창작에 바쳐가겠다.》

본사기자 홍병식

